

# 운영 중단 체육시설 재개방... 방역 강화

전북체육회, 헬스장·스쿼시장 등  
1층서 비접촉식 체온계 활용  
손 소독제 비치·승강기 매일 소독

전북체육회는 그간 운영을 중단했던 체육시설(헬스장·스쿼시장 등)을 최근 다시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도 체육회는 체육회관을 찾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체육회관의 일부 출입문 폐쇄, 승강기(엘리베이터) 통제, 특히 1층에 의무 정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체육회관 이용자가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을 가기위해 승강기에 탑승을 했더라도 1층에 자동 서게 되는 것이다.  
1층에서는 체육회 직원들(교대근무)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 발열상태를 체크하고 방역록을 작성하게 된다.  
아울러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승강기와 화장실 등은 매일 소독에 나선다. 또 체육회관은 주1회 전체 방역을 벌일 계획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체육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예방하고 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일본 도쿄 오다이바에 설치된 올리기 조형물의 모습.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폐회식 간소화 검토

내년 올림픽 개최도 불투명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폐회식을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본 내각스포츠청은 3일 대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도쿄올림픽, 패럴림픽대회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오는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7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년 올림픽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시스

매체에 따르면 2021년으로 연기된 올림픽의 대회 예산을 줄이기 위해 연출 계획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막식은 어느 정도 축제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각 폐회식을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회식을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럴 경우 패럴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개막에 맞춰 한 달 정도 일찍 일본으로 입국해야하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뉴시스

## 강정호, 5일 한국 귀국... 바로 자가격리

입장 표명은 격리 끝나는 대로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KBO로부터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은 강정호(33)가 한국에 입국한다.  
강정호의 에이전트 (주)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3일 "미국에 있는 강정호가 오는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이전트 관계자는 "해외 입국장의 경우 공항에서 가족 외에는 접촉금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자가격리가 끝나는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최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그러나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이에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복귀 후 1년 유기실격에 3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징계가 해제된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그러나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는 회의적이다. 여론의 시선도 싸늘하고, 프로야구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국에서 '관심 집중'  
KBO 영문 홈페이지 오픈

KBO(총재 정운찬)는 KBO 공식 상품 판매 플랫폼인 'KBO 마켓'의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올 시즌 KBO 리그가 해외 130개국으로 증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KBO리그 상품 구매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외 팬들이 KBO 리그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KBO 공식 상품 판매 플랫폼인 'KBO 마켓'의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됐다.  
해외 야구 팬들은 KBO 마켓 영문 홈페이지에서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 KBO리그의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배송까지 받을 수 있다.  
KBO 마켓은 올 시즌부터 구단 유니폼 및 모자 등 주요 상품(일부 구단 제외)의 판매를 더욱 더 확대해, 팬들로 하여금 구단의 더욱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뉴시스

## 플로이드 세레머니 "처벌 아닌 박수"

인판티노 FIFA 회장 "어떠한 인종 차별도 허용 안해"  
선수들의 정치적 행위 금지하지만 상식 선에서 접근 입장

국제축구연맹(FIFA) 지안니 인판티노 회장이 최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있었던 미국의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 추모 세레머니에 대해 "처벌이 아닌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IFA는 3일(한국시간) "우리는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잘 공감하고 있다. 줄곧 캠페인을 벌인 것처럼 어떠한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나아가 세계 곳곳이 들끓고 있다.

플로이드는 흑인 남성은 지난달 26일 백인 경찰의 과도한 체포 행위로 사망했다. 경찰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강하게 눌러 진압하고, 플로이드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며 애걸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건과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고, 이는 세계 스포츠계에 영향을 줬다. 최근 유럽 축구 무대에서도 이에 항의하는 세레머니가 이어지고 있다.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의 산초는 지난 1일 경기에서 목을 넣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Justice for George Floyd)'라고 적힌 속옷을 꺼내 카메라 앞에 썼다. 정치적 표현 금지 규정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국가대표로 독

일에서 활약 중인 웨스턴 맥케니(살케)가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규탄 시위를 지지하는 밴드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 하안책으로 된 밴드 위에는 역시 '조지를 위한 정의'라고 쓰여 있다.  
맥케니는 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리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지지해야 한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썼다.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올렸다.  
FIFA는 그라운드 위에서 정치·사회·종교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이 직접 나서 선수들의 세레머니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FIFA는 관련 규정에서 "상식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유연한 대처를 주문하며 인판티노 회장의 뜻이 반영된 서한을 가맹국 211개국에 보냈다. /뉴시스

## 백승호도 '플로이드 추모'... 블랙아웃 화요일 캠페인 동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2부리그)에서 활약 중인 백승호(23·다름슈타트)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면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블랙아웃 화요일' 캠페인에 동참했다.  
백승호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검은색 배경에 흑인, 백인, 동양인을 상징하는 '기도하는 손' 이모티콘과 검은색 하트를 올렸다.  
이는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러 숨진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하고 인종차별 항의에 연대하는 '블랙아웃 화요일' 캠페인이다. /뉴시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는 일

- 농어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음수 및 유지관리사업
- 농지은행사업
-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 지체 및 해외사업

KFSA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